

# “불의와 강압에 맞선 여성들 담아냈어요”

●‘광주시립극단제3회 창작 희곡 공모’ 당선 이난영 작가

### 일제 강점기 ‘광주학생독립운동’ 소재로 써낸 작품 ‘소녀들’ “억압의 시대 보통 사람들의 치열한 저항·용기 바라봐주길”

“세상 속 불의(不義)에 맞서며 진실을 찾아가는 여성들의 얘기를 통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자연스럽게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광주시립극단 제3회 창작 희곡 공모에 이난영(사진)작가의 작품 ‘소녀들’이 당선됐다.  
15일 광주시립극단 등에 따르면 지역 소재 애깃거리로 발굴, 대표 레퍼토리 공연을 제작하기 위해 지난 7월21일부터 10월25일까지 희곡 공모를 진행했다. 이번 공모에는 총 13개 작품이 접수됐으며, 지난달 4-28일 심사를 거쳐 당선작으로 이 작家的 ‘소녀들’이 최종 선정됐다.

‘소녀들’은 일제 강점기 친일파 아버지를 둔 집안의 형제들이 갈등하고 변화하며 성장하는 내용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소재로 불의와 강압적인 시대에 대한 여성들의 항거를 담아냈다.  
심사위원들은 당선작 ‘소녀들’에 대해 “극 구성이 탄탄해 서사 전달력이 좋고, 인물 형상이 탁월한 점을 선정 이유로 꼽았다”며 “공연 시공간 창출이 용이하고 개성적인 연극에도 도움이 되며,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의의를 전달함으로써 시립극단의 위상과도 결이 같은 작품”



이라고 평했다.  
이 작가는 “‘소녀들’은 1929년 11월3일 일요일에 일어난 ‘광주학생운동’ 중심에 있던 광주여고보 독서모임 ‘소녀회’를 모티브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작품을 쓰면서 주목했던 건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난 계기가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진실에 눈을 뜨고, 어떻게 연대했고, 어떻게 탄압에 맞서는가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식민의 시대를 살아갔던 수많은 보통 사람에 대한 저의 편견과 무지를 깨우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많은 분들이 연극을 통해 억압의 시대에 용기 있

게 살아갔던 소년, 소녀들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 작가는 “‘소녀들’은 억압의 36년, 이 땅의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했고, 발전했고, 고뇌했는지 함께 발견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쓴 작품이다”며 “김영의 시대, 금서를 통해 정의를 찾아가던 ‘소녀들’을 의미 있게 받아준 광주시립극단 심사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당선작 ‘소녀들’은 오는 2025년 광주시립극단 기획공연으로 제작돼 무대에서 공연될 예정이다.  
한편 이난영 작가는 2010년 부산일보 신춘문예에 ‘일등급인간’으로 등단했으며 전국 창작 희곡 공모 금상, 베스트 연극상, 전국연극제 대상 등을 수상했다. 대표작으로는 ‘투견’, ‘그 집 여자’, ‘웃으며 안녕’ 등이 있다. /최명진기자



전남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 성료

전남도는 지난 13일 신안 리마디&씨원 리조트에서 ‘2024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를 개최했다. 치매관리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대회에는 22개 시·군 치매안심센터 관계자, 관련 전문가, 치매안심병원 및 지역사회 유관기관 종사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치매관리사업 우수 기관에 선정된 장성군·담양군·화순군·완도군이 기관 표창을, 치매관리사업 유공 민간인 4명이 전남지사 표창을 받았다. /김재정기자



문영수 바르게살기 담양군회장 연탄 기부

바르게살기운동 담양군협의회는 “회장을 맡고 있는 문영수 법무사가 최근 수북면 이웃들을 위해 연탄 1천장(100만원 상당)을 수북면사무소에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수북면 출신인 그는 21년째 매년 겨울 어려운 이웃을 위해 연탄을 전달하고 있다.  
문영수 법무사는 “연탄 가격 상승으로 취약계층의 겨울나기가 더욱 어려워진 만큼 앞으로 더 꾸준히 기탁할 예정”이라며 “다들 따뜻하게 겨울을 보내고 내년에도 건강할 모습으로 뵙고 싶을 바란다”고 말했다. /담양=정승균기자



여수교육지원청, 여수교육 시민포럼 ‘성료’

여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지역 사회와 함께 만드는 여수교육’을 주제로 여수교육 시민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여수지역의 인구 유출 문제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박상근 서울시교육청 본부장이 서울시 주거복합캠퍼스 사례를 소개하며, 학교와 주거시설을 한 공간에 배치해 학생인구 감소와 지역 개발 수요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안했다.  
박상근 본부장은 “여수와 같은 소도시에도 꼭 필요한 정책”이라며 주거복합캠퍼스가 여수형 교육 대안이 될 가능성을 강조했다. /여수=김진선기자



## 동구자원봉사센터-(주)물마루 ‘김장김치 나눔’

(사)광주동구자원봉사센터는 15일 ‘전날(수) 물마루가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사랑의 김장김치’ 50박스(10kg)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나주시 노안면에 위치한 물마루는 이번 김장김치의 재료가 농가에서 직접 재배한 배추와 고추에다가 천연미네랄 물을 사용했다.  
문제승 물마루 전무이사는 “김장김치가 생활이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상권 동구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정성으로 담은 김장김치를 매년 후원해주시는 물마루에 감사드립니다”며 “소외된 어려운 이웃에 전달



##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 ‘한중 국제학술대회’ 성료

국제인문사회연구학회(학회장 김태은)는 지난 14일 (사)아시아문화학술원 컨퍼런스홀에서 한중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인문사회콘텐츠학회, 인문사회2, 글로벌인문사회융합학회 등 4개 학회가 참여한 이날 학술대회에는 80여명의 한국과 중국 연구자들이 모여 연구윤리 교육과 함께 총 6편의 논문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국제학술대회 최우수 논문발표상은 중국 시



## 광주시의회,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눔 송년행사

광주시의회는 지난 13일 청사 1층 현관에서 ‘이웃사랑 김장김치 나눔 송년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관례적인 연말 송년행사를 대신해 봉사자와 이웃사랑으로 한 해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의원들은 지역 내 저소득 취약계층이 동절기를 지내기 위해 필요한 김장김치를 비롯해 쌀, 라면 등 생필품을 5개 자치구 복지부서에 전달했다.  
신수정 시의회 의장은 “겨울은 어려운 분들이 더 힘들고 고단해지는 계절이라 따뜻한 관심과 온정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은진기자



##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 김장김치 나눔 행사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은 “최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통해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부녀회, 효도회, 적십자 등 자원봉사자 20여명이 함께 김장을 해 무안군 9개 읍·

면의 결식 위험이 있는 취약계층 100가구에 전달했다.  
정병순 무안군종합사회복지관장은 “사랑의 김장김치를 받은 이웃들이 조금이나마 따뜻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성호기자

## 나주금성회, 인재육성 장학기금 300만원 기탁

재계나주향우모임 ‘나주금성회’는 “최근 나주교육진흥재단에 인재육성 장학기금 300만원을 기탁했다”고 15일 밝혔다.  
나주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윤병태 나주시장, 백기중 나주금성회 회장, 이병규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백기중 나주금성회 회장은 “나주의 미래를 책임질 고향 후배들의 학업 정진을 위해 장학기금을 기탁했다”며 “앞으로도 재계 향우 회원들과 고향 나주 발전 및 후배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병태 시장은 “고향인 나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금을 꾸준히 기탁해준 나주금성회에 감사하다”며 “장학금은 나주 교육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09년 결성된 나주금성회는 올해까지 총 1천200만원의 인재 육성기금을 나주교육진흥재단에 기탁했으며 나주배, 나주쌀 등 고향 농·특산물 판로 개척, 어려움을 겪는 고향 사람들을 위한 성금 기탁 등 다양한 애환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나주=정중환기자

## 목포시청소년수련원, 방과후아카데미 ‘전국 최우수’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은 “최근 수련원이 운영하는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나루학당’이 여성가족부 주관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종합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종합평가는 전국 8개 도 지역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본형 137개소를 대상으로 사업관리 역량, 운영 성과, 행정 참여도, 가점자료 등 4개 영역, 12개 지표로 평가됐다.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은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역 기관 및 단체와의 지원협력을 통한 자원 확보 ▲생태기후환경교육과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 ▲봉사활동 등 특성과 프로그램의 지역사회 참여도가 호평 받았다.  
주인철 목포시청소년수련원장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 전문가관



의 연계·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을 위한 행복한 교육 환경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청소년수련원은 2024년에 전남 지역 초·중·고 인성수련활동, 진로체험교육, 동아리 활동 지원, 다문화캠프 등을 운영하면서 행복한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정해선기자

